



한국 대학의 재자리찾기

김봉준

(편집위원장)

대학이 진통을 앓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모든 관심이 대학 진학문제로 집약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장이 곧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계층질서의 구조화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개혁은 한국 교육 전반,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의 개혁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BK21 실사를 둘러싼 향의와 사립학교법 통과는 대학의 민주화 및 개혁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식의 생산 그리고 고급인력의 양성기관으로서 대학이 갖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지난 50여 년의 한국 대학의 역사는 '학문 발전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통제와 학생저항으로 점철되어왔으며, 따라서 대학이 학문과 교육의 기능을 수행한 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개혁을 통한 대학의 재자리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으나, 이에 대한 정부 당국과 학자들의 대안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21세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한국의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이번 호는 ‘대학개혁과 한국 사회’를 특집으로 마련했다. 김종엽의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개혁 비판」은 김대중 정부의 대학개혁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 그는 김영삼 정부의 수요자 중심론에 기초한 개혁의 철학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비일관성과 혼란을 겪고 있어서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비판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종구의 「사회개혁과 새로운 대학교육체제」 역시 현재의 대학개혁 방향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한국 대학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운의 「이공계 대학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접근」은 한국 이공계 대학의 공공성 확보의 대안으로서 ‘과학상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덕련·이상술의 「대학구조조정과 학생사회의 대응」은 그 동안 대학개혁의 한 주체인 학생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호의 기획논문으로는 김상조의 「재벌의 생보사 지배에 따른 폐해와 개혁방향」, 김경희의 「한국 여성노동조합운동의 출현」을 실었다. 전자의 경우 지난번 삼성생명 상장문제를 둘러싸고 큰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후자는 현재 태동중인 여성노동조합의 현황과 그것이 노동조합운동에 갖는 함의를 정리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노동조합의 경험은 많은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비판사회학의 흐름’으로는 낸시 프레이저 등 페미니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미경의 글을 실었다. 다음 호 앤터니 기든스 관련 글을 마지막으로 이 기획은 일단락을 지을 예정이다.

연구논문으로는 김왕배, 김윤태, 김귀옥의 글을 실었다. 모든 글이 이 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를 개척하는 글들이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과학진영이 이론적 출구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글

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와사회》가 이번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등재 후보로 올랐다. 우리는 《경제와사회》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과학지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더욱 엄정한 논문심사와 질 높은 논문 수록으로 《경제와사회》의 격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독자들의 많은 질정이 있기를 기대한다.